

16/01/17(주) 주일예배 / 제목 :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눅 12:42~48) p.116

(42)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43)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다 (44)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45)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46)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47)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48)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들어가는 말 / 오늘도 우리 주님 전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2장 41절로 48절 말씀을 가지고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이 본문을 택하게 된 것은 청지기된 우리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서론 / 우리를 가리키는 성경의 용어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만 또 하나 부르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청지기’하는 말입니다. 예전에는 청지기는 주인의 살림을 다 위임 받아서 주인을 대신해서 그 살림을 관리하고 돌보는 사람을 우리는 청지기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의 잘 아는 청지기로서는 ~~요셉~~ 들 수 있습니다.

요셉은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청지기로 쓰임 받습니다. 비록 그는 노예로 끌려갔지만 그 노예 가운데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는 요셉을 발탁해서 그 집의 가정총무로 삼았다는 성경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가정총무가 바로 청지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주인의 모든 권한을 위임 받고 그 주인의 아내 외에는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결정하고 또 농사도 짓고 사고팔기도 하고 종들을 다스릴 수 있는 이런 권한을 부여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청지기입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하여 선한 청지기와 악한 청지기의 기준이 무엇이며 어떻게 처신을 해야만이 선한 청지기가 될 수 있는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론 / 선한 청지기와 악한 청지기의 기준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청지기의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놓고 두 종류의 청지기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한 종류는 선한 청지기인데 그는 진실하고 지혜로워서 주인이 청지기에게 모든 가정 일을 맡기고 먼 여행을 떠났지만 주인이 있을 때와 똑같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고 종들을 관리하며 집안일을 열심히 하는 청지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주인이 갑자기 돌아와 보니 청지기가 열심히 집안을 돌보고 있는데,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그를 축복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청지기에게 맡겼다는 것입니다. 42절로 44절 말씀을 보십시오. (42~44절) “(42)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43)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 으리도다 (44)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그러나 선한 청지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악한 청지기도 있습니다. 이 악한 청지기는 게으르고 불량한 청지 기입니다. 그는 ‘주인이 먼 길을 떠나고 없느니까 이제 살판났다. 내 세상이다. 내가 주인이다.’ 이렇게 주인처 럼 행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선 종들을 불러서 그는 평소에 자기에게 밍게 보이던 종들을 마구 때립니다. 술 취하고 주정을 하고 시간을 낭비하고 온 집안을 들썩여놓습니다.

그런데 생각지 않은 때에 주인이 와서 그 상황을 보고 그 종을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그 주인은 그 악한 청지기를 신실하지 않은 자가 받는 벌에 처하고자 그를 엄히 때리고 엄히 징계했습니다. 45절로 46절 말씀을 보십시오. (45~46절) “(45)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46)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 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나”

그래서 주님께서는 선한 청지기과 악한 청지기의 비유를 들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47절과 48절을 보십시오. (47~48절) “(47)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48)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 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이 선한 청지기는 정말 주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 인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종들과 가정을 섬길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의 심리는 어떻습니까? 직장에 나가서도 사장님이 지켜보고 누가 일을 열심히 하나 하고 지켜보면 열심히 하는 척 하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일주일 동안 미국에 출장을 갔다 그러면 ‘이제 살판 났다’ 그래서 출근 시간도 잘 안 지키고 점심 먹으러 나갔다고오면 2시간이나 지나서 들어오곤 할 것입니다. ‘몸이 빠근해서 나는 사우나 좀 갔다 와야 겠어.’ 이렇게 말하고선 근무시간에 아무렇지 않게 근무자리를 떠나버리곤 합니다. 이런 모습이 보통 사람들 이 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선한 청지기는 그렇게 하지를 앓았습니다.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주인이 없 으면 자기가 주인처럼 행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들이 와서 주인이 없으니 자기에게 주인처럼 깍듯이 대하니까 청지기가 기고만장해져서 교만해져 일을 그르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은 초심을 잃기 쉽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감사하고 처음에는 일할 수 있는 것이 너무 감격스럽지

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아이고! 이까짓 일을 내가 해야 되나? 내가 이런 거 할 사람이야.’ 이렇게 하면서 일을 비하 시키고 자신을 너무 존귀하게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심을 잃어버리고 은혜를 망각해 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한 청지기는 처음이나 마지막이나 주인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그는 열심히 일해서 주인의 인정과 칭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청지기의 마음속에 믿음을 심어주셨고, 열심을 심어 주셨고, 그로 하여금 주인이 없을 때도 **최선을 다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청지기에게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너는 주인이 있든지 없든지 최선을 다해야 된다. 마치 주인이 옆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면전에서 일하는 것처럼 너는 일해야 된다.” 라고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청지기의 마음속에 **경각심**까지 심어주신 것입니다. “너는 청지기지 주인이 아니야! 너는 착각에 빠지면 안 돼. 언제든지 주인을 바라보고 주인이 기뻐하는 일을 행해야지. 잠시라도 네가 주인이 없는 틈에 네가 주인처럼 행사하면 안 된다.” 라는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청지기에게 **거룩한 긴장감**도 주셨습니다. ‘우리 주인이 언제 올지 몰라. 그러니 나는 늘 깨어 있어야지.’ 이래서 긴장을 풀지 않고 그가 최선을 다할 때에 그는 정말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라고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이런 청지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신 직분과 사명에 따라서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주님이 오늘 내 앞에서 나를 보고 계신 것처럼 내가 일하고 충성하고 있는가?” 이렇게 심각하게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청지기들이 주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명과 직분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청지기는 먼저 진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인을 속이고 주인의 재산을 뒤로 가로채는 청지기라면 그 주인이 그를 사용할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결국 버림당하게 되고 주인에게 책망 받는 청지기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청지기는 진실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청지기는 지혜로워야 하고 주인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악한 청지기가 있다면 그는 결국 주인에게 발각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진실한 청지기가 될 수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는 좋은 청지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25장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잠 25:13)**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충성된 사자가 누구입니까? 충성된 일꾼, 충성된 청지기는 그 무더운 여름에도 시원한 냉수 같아서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주님의 마음에 시원함을 드리는 그런 청지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셨다면 하나님이 그냥 세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세우신 것입니다. 청지기가 지혜롭고 진실하기에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주인의 신임과 사랑과 축복을 받게 됩니다. 충성된 청지기에게는 썩지 않을 면류관이 주어집니다. (계 2:10)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힘들고 어렵고, 힘겨워도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 정말 열심히 우리가 충성을 다할 때, 주인의 영광에 동참하는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을 보십시오. (롬 8:18)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내가 주의 참 청지기로서 때로는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이 때론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명을 감당하면은 하나님 나라에게 받는 영광은 지금의 고난과 족히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청지기가 열심을 다해서 섬기면 주인이 오히려 그를 섬긴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7절을 보십시오. (눅 12:37)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아와 수종들리라.” 아멘.

주인이 혼인잔치 갔다가 밤늦게 돌아 왔습니다. 종들이 다 자는가 했더니 집안이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고 불이 켜져 있어서 보니까 이 청지기가 아직도 잠을 자지 않고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본 주인은 너무 기뻐서 오히려 그 종들을 다 불러서 주인이 그들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보통 가정에서는 종이 주인을 섬기지만 이 주인이 너무 감동해서 종들을 다 섬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혹시라도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으십니까? ‘나는 장로도 아니고 나는 뭐 서리집사 밖에 안 되는데 내가 열심히 해봐야 누가 알아주겠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고 계시고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오늘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다.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할 것이다.” 내 직책이 무겁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이 무겁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약 3:1)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 말의 뜻은 “너희들은 서로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아라. 선생이 되어서 잘못 가르치면 그 벌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종들보다 청지기가 잘못할 때 그에 대한 벌이 더 엄격한 것입니다. 직분은 영광스러운 것이지만,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거기에는 엄중한 질책이 따른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신실한 청지기를 찾고 계십니다.

유명한 강철왕인 ‘캐기’에게 있었던 일화가 있습니다. 그가 일생을 회사를 잘 운영하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후계자에게 회사를 넘겨주어야 했습니다. 언론들은 누구에게 저 큰 회사를 맡길까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쉬부’라는 사람에게 이 회사를 맡긴다는 발표가 나서 이 ‘쉬부’라는 사람이 누구냐 하고 찾아봤더니 그 사람은 학력이 초등학교 졸업이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저런 사람에게 이 큰 회사를 맡길 수가 있느냐? 그 캐기 회사에는 유명한 박사들도 많고, 대학원 출신들도 많은데 어떻게 이런 사람에게 그 큰 회사를 맡길 수 있는냐?” 고 다들 크게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캐기는 조금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 쉬부라는 사람은 그 회사의 ‘정원 청소원’으로 들어온 사람이었는데 캐기가 보니까 이 사람은 정원 청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날 때 공장 바닥까지 다 깨끗하게 청소를 하는 것입니다. 시키지 않은 일까지도 자원해서 열심히 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캐기는 이런 모습을 보고서 “아! 저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우리 회사의 직원으로 고용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 사람을 공장의 직원으로 채용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는지 그 다음은 사무실 직원으로 채용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무를 배워서 하는 것을 보니 빈틈이 없이 성실하게 잘 해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를 자기 비서로까지 채용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그는 캐기 뒤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무슨 말을 해도 다 메모를 하고 하나도 빗나가는 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캐기가 퇴근을 할 때까지 늘 옆에서 기다리다가 캐기가 퇴근한 후에서야 그 다음에 그 비서는 퇴근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모습을 지켜본 캐기는 ‘쉬부’ 라는 사람을 겪으면서 정말 회사를 사랑하고 열정을 다해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 이 회사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초등학교 졸업자에 불과했지만 그의 성실성과 책임감을 높이 사서 그에게 이 어마어마한 회사를 후계자로 넘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지금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학벌을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가도 묻지 않습니다. 또한 얼마나 우리가 많은 돈을 가졌는가를 묻지도 않습니다. 주님이 묻고 있는 것은 ‘내가 있는 자리에서 얼마나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서 누가 보던지 안 보던지, 주인이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존전 의식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있느냐?’ 를 묻고 계십니다.

본문 42절과 43절을 보십시오. (42~43절)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도다.” 아멘. 하지만 우리는 악한 청지기도 경계해야 됩니다. 45절과 46절을 보십시오.

(45~46절)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

는 벌에 처하리니” 아멘. 그렇습니다. 주인은 반드시 오십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날, 예기치 않은 시간에 주인은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돌아온 주인은 반드시 선한 청지기들을 축복하시고 그에게 합당한 상을 내리십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날 때 가지고온 내 생명 이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와 재능, 건강, 내 직장, 이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가진 것 하나님 주신 것을 얼마나 열심히 나누고 베풀고 드렸느냐? 하는 것을 주님은 묻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물질만이 아니고 내가 이웃에게 얼마나 많은 사랑을 나눴느냐?, 용서를 베풀었느냐?, 내가 남을 섬겼느냐?, 이 직분에 최선을 다했느냐?, 그것이 바로 신실한 청지기로 평가 받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 /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흑사라도 아직까지 열심을 다하지 못했다면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이 가진 생명과 물질과 열정과 시간을 드려서 주님을 위해 헌신하십시오. 이게 주님이 원하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정말 성실하고 진실한 청지기로 설 때에 주님이 우리를 칭찬하시고 복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더 큰 일을 맡기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부디 더 열심히 충성스런 청지기가 되어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핵심 :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 됩시다.

요약정리 / 선한 청지기와 악한 청지기의 기준이 무엇인가?

주인이 있거나 없거나 할 것 없이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게 되면 선한 청지기이고, 주인이 없다고 하여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고 종들을 학대하면 악한 청지기인 것입니다.